



3면 전직 의원들, 민주당 탈당 대열에

전주매일

2024년 1월 16일 화요일 (음 12월 6일) 제3426호

www.jjmaeil.com

대표전화 (063)288-9700

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
세인 신경외과 의원
원장 박경문 ☎ (063)220-6600
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

총선 공약 10대 아젠다 136개 사업 여야에 제안

도, 총사업비 69조6816억원
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건립 등
도정 핵심·주요 현안 구성
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맞아
지역경제 도약 촉매제 예상

전북도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
속원사업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
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공약
사업을 발굴·제안했다.

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제22대
총선공약 10대 아젠다 136개 사업을
발굴하여 정당 및 총선 후보자 공약에
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했다
고 밝혔다.

도는 지난해 4월 전북연구원과 함께
22대 총선공약 사업 발굴을 위한 발굴
추진단을 꾸리고 신산업 22개, 농생
명 14개, 문화·체육·관광 17개, 새만
금·균형발전 13개, 지역개발·SOC 35
개 사업 등으로 도정 주요 핵심과제와
주요 현안사항들이다.

먼저, 신산업 분야로 새만금 광물가
공 재활용 분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
정에 따른 '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건
립'과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
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성
을 분석 평가하는 '이차전지 제조공정
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', 바
이오 융복합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를
위한 '바이오 특화단지 조성', 수소산
업 기반 구축을 위한 '국가수소진흥원
설립' 등 22개 사업이 제안됐다.

경제 분야로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
필요한 권한과 재정적 자립성 확보를
위한 '기후에너지투자 공사 설
립'과 새만금을 전국민의 투자처로 자
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'새만금 디지
탈자산화 특구 지정 및 조성', 글로벌
투자유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'전북
글로벌 투자 운용 사관학교 개설' 등
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경제도시 기반
조성을 위한 9개 사업이 제안됐다.

농생명 분야로 농산물 안정적 조달
과 유통을 위한 '국가전략작물 비축·
가공 클러스터 구축', 푸드테크 인증
및 규격화 연구분야 실증을 위한 '푸
드테크 인증센터 설립', 인수공통질병
연구·진단·치료 및 예방법 개발을
위한 '인수공통 연구지원 보존센터 구
축' 등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을 위한
14개 사업이 제안됐다.

문화·체육·관광 분야로 전국에 산
재하는 후백제 역사문화유산의 연
구·관리를 위한 '국립 후백제역사문
화센터 건립', 용담호와 연계하는 생
태문화관광의 '용담호 감성관광벨트
에코도피야 조성', 태권도 세계화와
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'국제 태권
도 사관학교 설립' 등 K-문화·체
육·관광 거점을 향한 17개 사업이 제
안됐다.

새만금·균형발전 분야로 새만금 기
업투자 급증 등 용지 매립 및 교통 인
프라 조기 조성을 위한 '새만금 주요
사업 조기 추진', 새만금 수변도시 내
국가기관의 선도적 유치에 위한 '새만
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', 수중고고
학 전문인력 교육·훈련, 수중문화재
보존·탐사 기술 개발을 위한 '국립수
중고고화센터 건립' 등 13개 사업이
제안됐다.

지역개발·SOC 분야로 동시간 교통
망 연결 '전주~무주간 고속도로 건
립', 전주에서 완주와 동부권을 연결
하는 관문 '완주 소양~진안 부귀 국
도 26호선 개량', 국토균형발전 및 지
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'전주~김천
철도망 구축' 등 광역인프라 35개 사
업이 제안됐다.

안전분야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무인
경비 및 조기화재 인지·확산방지를
위한 '전통시장 안전관리 로봇 기술개

발·실증', 섬진강 유역내 홍수 대응
능력 강화를 위한 '섬진강 다목적 홍
수조절지 조성', 교통약자에 특화된
교통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'교통약
자 보행 안전도시(U-City)' 등 재난재
해 제로 도시 구원을 위한 6개 사업이
제안됐다.

환경복지 분야로 새만금 지역 이차
전지 소재 기업 급증에 따른 전용 폐
수 처리 기반인 '새만금산단 이차전지
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', 국내외
산림약용식물 원료 및 체험 융복합 단
지 조성을 위한 '국립 지덕권 산림약
용식물 특화단지 조성' 등 사람과 자
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위한 10개
사업이 제시됐다.

복지분야 제안사업으로 신노년세대
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따른 체계적 교
육훈련 지원기관인 '국립통합형 노인
일자리센터 건립', 산모와 영유아 건
강 보강과 지원을 위한 '모어(母愛)
복지지원센터 건립' 등 맞춤형 생활복
지 5개 사업이 제안됐다.

교육·소통분야는 외국인 대상 사회
통합 및 교육 지원 기관 설립을 위한
'국립 외국인 교육단지 조성'과 청소
년 성장 지원망 형성 '함께로(路) 청
소년 활동 플랫폼 구축' 등 5개 사업
이 제안됐다.

김관영 도지사는 "도민 삶의 질 향
상과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확립을 위
한 촉매제 총선을 알차게 활용해야
한다"며 "주요 핵심 과제에 각 정당
및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
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"고 말했
다.

이번 총선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
도 시대 개막을 맞아 지역경제의 새로
운 도약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
예상된다.

전북도는 앞으로 발굴한 총선공약
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선
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
계획이다. /김재훈 기자

개인방역수칙 생활화
감염병 예방의 지름길



전북도 오는 18일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행사를 앞두고 있다. 사진은 지난 4일 전북도청 공영장 한쪽 벽면에 전북특별자치도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.

‘새로운 항해! 전북특별자치도 출항 준비 끝’

도, 행정정보시스템 등 모의훈련 거처며 막바지 최종 점검
거리현수기 게첨 등 온·오프라인 홍보로 인지도 확산 주력

전북도 오는 18일 새로운 역사를 써
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를 모두
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행사를 앞두고
있다.

도는 전북자치도 전환에 따라 행정
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등
행정정보 2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86
건, 도와 시군 자체 388건 등 모두
1,344건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
모의훈련을 거치는 등 단 1건의 오류
도 발생하지 않도록 막바지 최종 점검
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도는 또 도로와 문화재, 하천, 관광
포지판 등 1만4,563건을 출범일 전까
지 모두 교체 완료될 예정이다.

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수
기도 전주역을 비롯해 전주한옥마을

등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400
여개가 걸렸다.

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의 범국민 인
지도 확산을 위한 온·오프라인 이벤
트 진행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
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
이다.

도는 출범 하루 전 도청 야외광장
에서 도민 5,000여명이 참석해 '특별한
시작을 알리는 전야제'와 각 시·군에
서도 '함께하는 시군 축하 행사'를 개
최해 출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
로 했다.

전야제에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
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
들이 만든 플래시몹(Flash mob) 영상
과 공연,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

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·레이저 쇼,
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겨울밤
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.

출범식에서도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
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도민
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, 릴레
이 응원 영상, LED 트론 퍼포먼스, 출
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
채로운 공연으로 자치도 출범을 축하
한다.

출범식이 열리는 오는 18일에는 한
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·외 각계
인사를 비롯해 도민 2,000여명이 참석
해 자치도의 첫걸음을 축하할 예정이
다.

도는 출범 이후에도 김관영 도지사
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7
개 권역에서 직접 도민들에게 다가
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
최하는 등 홍보활동과 자긍심 고취에
나선다는 방침이다. /김재훈 기자

전북자치도 변경... 도, 18일 읍면동 복지서비스 증명서 발급 중단

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
른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사회보장정
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8일
시스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, 행정구역 개편 작업기간
중 시스템을 통한 복지 민원 서비스
및 정부24, 무인민원, 읍면동 행정복지
센터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불가하다.
다만, 복지포털(http://bokjiro.go.kr)을

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, 의료급
여 증명서,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
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
자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 차상위계층
확인서 등 6종의 증명서는 발급받을
수 있다.

복지포털을 통해 발급이 안되는 기초
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는
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

19일 이후에 가능하다.
김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
"1월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
발급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며, 각
시·군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전 안내 민
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
겠다"고 말했다.

/김재훈 기자

더 특별한 전북교육

함께 도약!

더 특별한

전북교육

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